

김정범

김정범 작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자의나 타의로의 속박, 그 속에서 희망과 미래, 새로움을 꿈꾸는 작가 자신을 작품화한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두상은 예전 프랑스 유화시절 초기 중세 고딕성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조상들에 매료되었던 개인적 경험에서 연유했다. 인간 두상은 오랫동안 조각사 전반에서 수없이 재현되고 있을 만큼 입체를 다루는 작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재이자 도전과제이며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또한 블루라는 색상은 작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주요소로 그가 생각하는 블루는 유채색과 무채색을 뛰어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색으로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세계를 품고 있다. <Blue Head I>은 그의 작품에서 청화백자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문양들로 중국의 당대, 유럽과 아랍의 모자이크, 세계 각국의 전통 문양을 차용하여 푸른색과 도자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지역, 문화, 시대와 관계했던 다양한 이미지들이다. 그는 단순히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 낙서를 통해 도자타일 작업과 캔버스 위에 새로운 그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평면 작업인 도자타일과 캔버스를 통해 그는 응축된 내면과 감성, 사유를 드러낼 새로운 그의 작업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 작품인 <Blue Head II>에서는 마치 새장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들이 채운 듯 그러나 비워진 상태로 전시공간을 연출했다. 해부학적으로는 핏줄과 힘줄이고 색과 선들의 엇갈림과 뒤엉킴은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억압된 표현이다. <Blue Head III>은 일종의 접시 위의 드로잉이다. 접시는 흙과 불을 다루는 도예가에게 캔버스와 다른 차원의 예술적 시도이자 화면이다. 그는 청화로 그린 옛 접시들에서 이 작업의 모티브를 찾았다. 그의 모든 작업은 작업하는 동안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열정, 의지와 욕망을 담고 있다.



삼각빨_240x280x350mm_Porcelain, stoneware, cement, 1260°_2016